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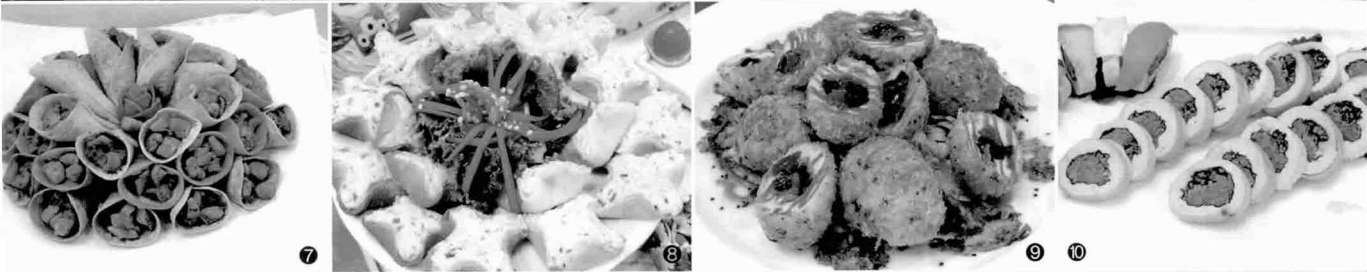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개막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2008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더 맛있고, 더 안전한 축산물로 소비자를 행복하게!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08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KAPF 2008)'이 지난 10월 2일~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1홀과 시민광장에서 열렸다.

개막식 행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2차관, 농협중앙회 최병원 회장,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하 부회장, 축산발전협의회 김대현 회장, 본회 서성배 회장을 비롯한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장과 축협조합장, 축산분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2차관은 개회사에서 "축산물 생산액은 2004년부터 쌀 생산액을 넘어



- ① 개막식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하트풍선을 날리고 있다.
- ② 시민광장에 마련된 축산물 체험 전시장
- ③ 시민광장에서 가족들이 병아리를 구경하고 있다.
- ④ 페스티벌 입구 전경
- ⑤ 요리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일반인
- ⑥ 요리대회에서 채점을 하고 있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⑦ 불닭 꽃다발 ⑧ 닭 가슴살 무 만두 ⑨ 닭 가슴살 과일 볼
- ⑩ 닭고기 롤과 초밥 ⑪ 치킨왕버거

섰으며, 지난해에는 농업 총 생산액 중 32.5%를 차지했다”며 “축산업 발전은 축산인들이 시련을 극복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농가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제2녹색혁명인 조사료 재배지 확대와 온·오프라인 직거래 시스템 구축, 한우산업 근본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식품산업의 핵심인 축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축산인들은 얼굴 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선진축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소

비자와 유통인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축산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부회장은 축사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인들이 브랜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소비자들도 우리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이 소비하면서 농가와 함께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8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는 2008인분 한우 안심곰탕 배식, 브랜드 축산물 시식체험, 요리경연대회, 브랜드



12 13 본회에서 포스트잇과 위생백을 나눠주고 있다.
 14 (주)하림이 독립부스로 참가해 소비자들에게 시식 행사를 하고 있다.
 15 홍보용 닭
 16~17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축산물 요리솜씨 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대한영양사협회는 초·중·고교 영양사 1천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동안 축산업 이해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요리경연대회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해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를 이용해 퓨전, 궁중, 전통요리 등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였으며, 닭고기 요리로는 불닭 꽃다발, 닭 가슴살 무 만두, 닭 가슴살 과일 볼, 닭고기 롤과 초밥, 치킨 왕버거, 닭고기 치즈구이와 김치소스 등 새롭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본회도 2개 부스로 참여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본회 회원사 브랜드 및 제품 소개와 아울러 품질보증마크를 홍보했다. 또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닭고기의 우수성과 품질보증마크를 소개하는 내용의 위생백 1만개와 포스트잇 1만개를 제작, 배부해 소비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본회 회원사인 (주)하림이 독립부스로 참가해 무료시식회, 판촉행사, 제품홍보 등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닭고기 가공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등 전국 92개 우수 축산물브랜드가 참가해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춰 저마다의 기량을 뽐냈다. 특히 출품 브랜드 경영체와 생산농기들은 고품질·안전 축산물을 생산해 사료값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간담회 등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져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 글·정승일 기자(jsid@naver.com)